

‘묻지마 2번’은 끝났다 텃밭안주 野 ‘레드카드’

이정현 효과 정치권 흔들다

- 1 다바꿔라 새정치연합
- 2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
- 3 반응하라 TK·PK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승리로 광주·전남지역에서 26년 만에 지역구도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린 ‘이정현 태풍’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역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당장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31일 7·30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유력 주자로 꼽혀왔던 안철수 의원의 대망론도 동력을 잃었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총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 지도부 사퇴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텃밭이자 야권의 심장으로서 여겨졌던 순천·곡성지역 보궐선거 패배로 꼽히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에는 순천·곡성 지역을 넘어 새정치연합에 이대로는 안되며 뼈를 깎는 혁신으로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마련하라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난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무리한 전략공천을 밀어붙인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오만한 행태는 광주·전남 민심의 공분을 샀으며 이는 순천·곡성 보궐선거 패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담긴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승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떠한 혁신의 응답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은 정치적 안주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메기론’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뼈를 깎는 변화·혁신으로 정권창출 비전 마련하라는 호남 민심의 준엄한 명령

역할못한 지역 국회의원들 과감한 교체로 생산적 정치구도 만들어야

선거 과정에서 ‘예산 폭탄’ 공약을 제시한 이정현 당선자가 국회 등원과 함께 여당의 힘을 등에 업고 저돌적 예산 확보에 나선다면 광주·전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의 발걸음도 바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당선자의 당선에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 강력한 자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치적 존재감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역주의 타파와 진정성으로 무장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등장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정현 당선자의 승리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에서 그동안 역할을 하지 못했던 지역 국회의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자의 승리는 지역구도 타파의 물꼬를 텄다는 커다란 의미 외에도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에 혁신과 쇄신에 나서라는 강력한 요구로도 일하고 있다”며 “이제 새정치연합과 지역 정치권이 응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명사십리 피서 인파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어 지난 31일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찾아 남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완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백의종군 安·金... 정계은퇴 孫

철수 한길 학규

새정치 재보선 참패 후폭풍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체제



“안이었다” 재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31일 동반 사퇴하는 물론 당내 유력 대선주자로 수위 팽달구에서 패배한 손학규 상임고문도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대표를 책임”이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최고위원들도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의결했다. 주승용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자들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26일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제1야당 새정치연합의 ‘김·안 투톱 체제’는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불과 4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유기흥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당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총사퇴와는 별개로 손학규 상임고문도 이날 오후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해 충격을 줬다. 손 고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7·30 재보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는 오늘 정치를 그만둔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뜻뜻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세상,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나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 했던 꿈을 이제 접는다”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풍 '나크리' 예상 진로



강풍·물폭탄 동반... 태풍 '나크리' 북상

광주·전남 오늘부터 영향권

광주·전남지역이 제 12호 태풍 '나크리'(NAKRI)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폭염 특보가 이틀째 내려지던 중 계속된 무더위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2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나크리'의 북상으로 광주·전남지역에는 1일 오전부터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예상 강

우량은 지리산 부근 100mm. 그 밖의 지역은 20~60mm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2~3일에는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도 태풍의 북상으로 사고해역에 대기 중인 바지 등이 긴급 피항하는 등 중단됐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사고해역에 대기 중이던 2척의 바지를 목표항으로 옮기고 수색 함정들도 태풍진로에 따라 소형함정부터 순차적으로 피항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 19일(주일)~22일(수)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광신대학교 062)605-1000

적성검사 깜빡 했다가
운전면허 취소 날벼락 ▶6면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 서기동 구례군수 ▶11면

예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4년 8월호

7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062-220-0550
팩 스: 062-222-0195

광주문화 문화답게
'예향'이 바라는 민선6기 광주문화 변화풍
"아시아문화도시 내실 채우고 문화기관 창조적 변화의 물꼬를"

기획
홀로 사는 5백만명
우리 곁에 '싱글족'
싱글족 라이프 스타일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영국 바비칸아트센터 예술감독 루이스 제프리스
"문화전당 개관하면 함께 작업해보고 싶어요"

문화 화제
월봉서원에서 만난 여유
빙월당 달빛 아래 꾸며진 무대와 감동

스타 데이트
"정직한 액션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 '신의 한수' 주인공 정우성

예향 초대석
한국인문학의 깊은 샘
석학 김우창 선생에게
'명든 한국사회, 답'을 묻다

이달의 아티스트
뮤지컬 '그날들'의 연출가
장유정의 감성과 열정

대상에 미래를 심다
신비정신과 저항의 맥이 뛰는 명그역사와 문명의 지역

전당에서 막 오르는
제5회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 2014 광주국제영화제
'평화를 위한 기억'을 부른다

해외문화 기행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 보르도를 가다